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3

http://sri.kostat.go.kr

2023

통계청
통계개발원

학교폭력 실태 및 추이 분석

신태섭 (이화여자대학교)

-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율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감소하다가 2019년부터 다시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완화된 2021년부터 학교폭력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 학교폭력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피해율이 높다.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이 가장 빈번한 피해 유형으로 나타났다.
- 금품갈취와 스토킹 피해는 2013년에 비해 2022년에 크게 감소했지만,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피해는 그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다.
- 코로나19 이후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 경험이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교폭력은 수업 집중 저하, 학업성취도 저하, 학업 중단 등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UNESCO(2019)의 학교폭력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은 소외당했다고 느낄 가능성이 3배 가까이 높고, 학교를 결석할 가능성이 2배 이상 높다. 또한 학교폭력은 정신건강, 삶의 질뿐 아니라 약물중독과 같은 위험 행동 등 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학교폭력실태조사」는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 폭력 실태를 조사한다.[1] 2012년부터 매년 2회 실시된 「학교폭력실태조사」는 학교폭력 피해경험, 학교폭력 가해경험 등과 관련된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서 축적된 정보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매년 1학기에 전수조사로 실시되는 「학교폭력실태조사」 1차 조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유형을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스토킹,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금품갈취, 성폭력, 강요로 세분화하여 초등학생(4, 5, 6학년), 중학생(1, 2, 3학년), 고등학생(1, 2, 3학년)에게 온라인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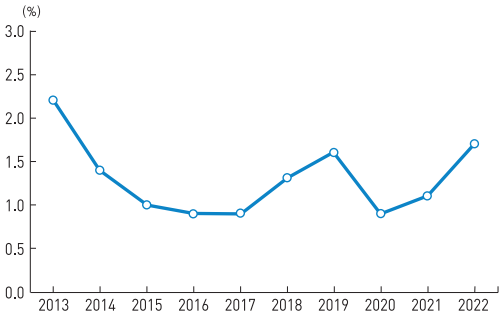
1) 「학교폭력실태조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2012년부터 매해 2회씩 실시되고 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2회 모두 전수조사였지만, 2018년부터 1차 조사는 전수조사, 2차 조사는 표본조사로 진행되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6개 교육청에서 설문을 실시한다(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고3을 제외하고 전수조사 1회만 실시).

을 진행한다. 이 글은 지난 10년간 진행된 「학교폭력실태조사」 1차 조사(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경험 실태 및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학교폭력 피해 실태 및 추이

학교폭력 피해율은 2013년 2.2%부터 2017년 0.9%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8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인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피해율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부터 다시 증가했다(그림 X-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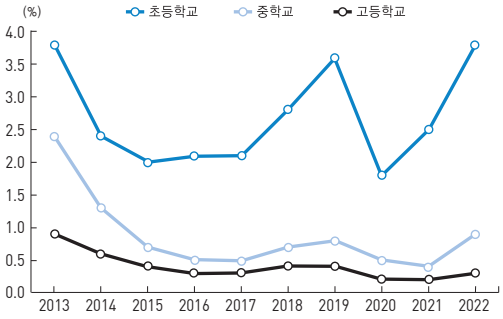
[그림 X-23] 피해율, 2013-2022



주: 1) 피해율=(피해응답 인원 수÷참여자 수)×100.
2)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전수조사로 1회만 조사됨(고3 제외). 2020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는 1차 조사 결과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각 연도.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학교폭력 피해율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서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학교급별 차이는 지난 10년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초·중·고등학교 모두에서 학교폭력 피해율이 감소하였으나 2018년과 2019년에 다시 증가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율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2021년부터 증가하여 2022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증가했다(그림 X-24).

[그림 X-24] 학교급별 피해율, 2013-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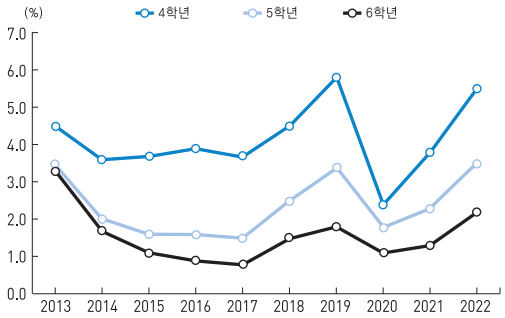


주: 1) 피해율=(피해응답 인원 수÷참여자 수)×10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각 연도.

[그림 X-24]에서 2018년과 2019년 초등학교의 피해율이 중·고등학교보다 상당히 가파르게 높아졌음이 확인된다. 이를 초등학교 학년별로 세분화해서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의 순서로 피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모두에서 학교폭력 피해율이 감소하다가 2018년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다. 2022년에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모두에서 피해율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

로 되돌아갔다(그림 X-25).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초등학생의 폭력 감지 민감도가 중·고등학생에 비해 높고, 특히 저학년일수록 친구 간의 단순 갈등 등과 같은 문제도 학교폭력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특성도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X-25] 초등학교 학년별 피해율, 2013-2022



주: 1) 피해율=(피해응답 인원 수÷참여자 수)×10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각 연도.

지난 10년간 피해 유형별 응답 수를 분석한 결과, 언어폭력이 가장 많은 피해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집단따돌림의 경우,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두 번째로 많은 피해 유형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신체폭력, 사이버폭력이 따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완화된 2021년 이후 모든 학교폭력 피해 유형에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신체폭력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 2013년과 2022년 두 시점을 통해 10년간 변화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스토킹 피해는 2013년 19,090명에서 2022년 5,360명으로, 금품갈취가 2013년 20,822명에서 2022년 5,113명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폭력 등은 지난 10년간 감소하기는 했으나 그 정도가 급격하지 않았다(표 X-7).

〈표 X-7〉 피해 유형별 응답 수, 2013-2022

(명)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스토킹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금품갈취	성폭력	강요
2013	70,489	34,414	19,090	24,248	18,861	20,822	6,818	12,582
2014	46,564	22,826	14,887	15,535	12,490	10,813	5,107	6,353
2015	32,502	16,917	12,370	11,632	8,992	6,986	4,106	4,145
2016	28,190	15,146	9,073	10,037	7,569	5,633	3,774	3,539
2017	27,826	13,547	10,079	9,600	7,983	5,222	4,160	3,290
2018	37,215	18,471	12,613	10,694	11,577	6,847	5,520	4,210
2019	33,333	21,759	8,167	8,037	8,321	5,875	3,622	4,640
2020	14,509	11,259	2,895	3,401	5,338	2,353	1,588	1,911
2021	25,508	8,878	3,795	7,597	6,016	3,523	2,502	3,307
2022	39,396	12,530	5,360	13,800	9,064	5,113	4,039	4,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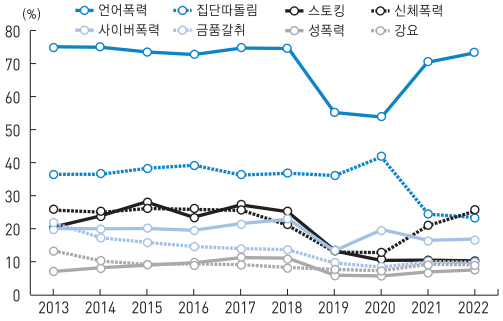
주: 1)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만 응답함(복수응답 가능).
2)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전수조사로 1회만 조사됨(고3 제외). 2020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는 1차 조사 결과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각 연도.

지난 10년간 피해 유형별 응답 수를 피해학생 수로 나눈 피해 유형별 응답률을 살펴보면, 피해학생 중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집단따돌림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두 번째로 빈번한 피해 유형이었으나 2022년에는 세 번째가 되었다. 신체폭력이 2022년에 두 번째로 응답률이 높은 피해 유형으로 나타났다.

스토킹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이버폭력은 일관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X-26).

한편,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데이터를 살펴보면, 피해 유형 중 대부분의 유형에서 피해율이 감소했지만, 집단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의 경우 오히려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시기의 비대면 수업과 온라인상 상호작용의 증가로 인하여 집단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의 학교폭력 피해율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X-26] 피해 유형별 응답률, 2013-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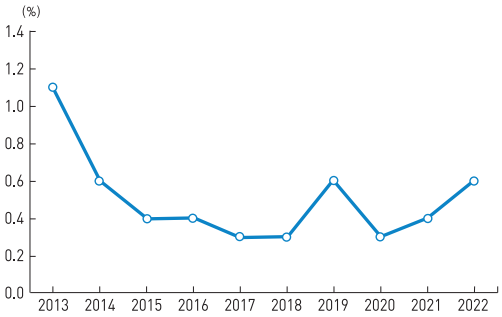


주: 1)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만 응답(복수응답 가능)함.
2) 피해 유형별 응답률(응답자 수 기준)= (피해 유형별 응답 수÷피해학생 수)×10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각 연도.

학교폭력 가해 실태 및 추이

지난 10년간 학교폭력 가해 양상 또한 피해 양상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율은 2013년 1.1%에서 2018년 0.3%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9년부터 다시 증가했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가해율이 감소하였으나 2021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다(그림 X-27).

[그림 X-27] 가해율, 2013-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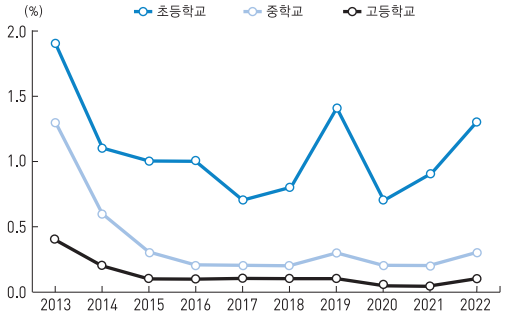


주: 1) 가해율=(가해응답 인원 수÷참여자 수)×100.
2)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수조사로 1회만 조사됨(고3 제외). 2020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는 1차 조사 결과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각 연도.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학교폭력 가해율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순서로 가해율이 높다. 이러한 학교급별 차이는 지난 10년간 동일하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초·중·고등학교 모두에서 학교폭력 가해율이 감소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모두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에 감소했다가 2021년부터 증가했다. 가해율의 감소와 증가 폭은 초등학교에서 가장 가팔랐다(그림 X-28).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초등학교 학년별 가해율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의 순서로 가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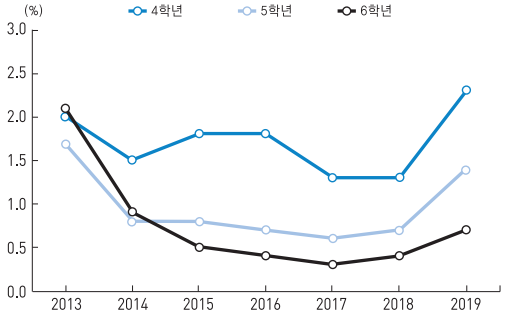
[그림 X-28] 학교급별 가해율, 2013-2022



주: 1) 가해율=(가해응답 인원 수÷참여자 수)×10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각 연도.

타났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모두에서 학교폭력 가해율이 감소하였으나 2018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4학년 가해율이 2019년에 급격하게 증가했다(그림 X-29). 한편, 2022년 초등학교 학년별 가해율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4학년은 1.9%, 5학년은 1.3%, 6학년은 0.8%로 나타났다.

[그림 X-29] 초등학교 학년별 가해율, 2013-2019



주: 1) 가해율=(가해응답 인원 수÷참여자 수)×10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각 연도.

〈표 X-8〉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의 가해 유형별 응답 수를 보여준다. 가해는 피해와 비교해 과소 보고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위의 피해 응답 수보다 그 수치가 낮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가해를 했다고 응답한 학생 수는 언어폭력에서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많이 보고된 가해 유형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집단따돌림, 코로나19 이후에는 신체폭력이다(표 X-8).

〈표 X-8〉 가해 유형별 응답 수, 2013-2022

(명)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스토킹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금품갈취	성폭력	강요	기타
2013	22,364	22,784	6,517	8,431	9,007	6,475	2,509	6,717	-
2014	12,643	12,875	4,694	4,318	5,416	3,157	1,509	2,954	-
2015	6,944	6,953	3,342	2,736	2,828	1,851	1,581	1,536	6,672
2016	5,571	5,353	2,534	2,295	2,196	1,365	1,363	1,159	5,926
2017	6,794	4,320	2,470	2,200	2,030	1,128	1,254	919	-
2018	7,688	4,221	2,415	2,642	2,346	1,353	1,516	1,020	-
2019	10,705	5,654	3,611	3,505	2,065	1,163	999	1,239	-
2020	5,001	2,663	782	1,109	1,334	501	422	392	-
2021	7,957	1,765	957	2,798	1,432	760	605	1,144	-
2022	12,399	2,519	1,178	5,066	2,076	1,090	923	1,60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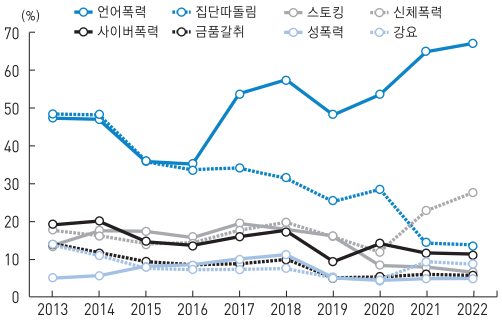
주: 1) 학교폭력 가해를 경험한 학생들만 함(복수응답 가능).
2)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전수조사로 1회만 조사됨.(고3 제외). 2020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는 1차 조사 결과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각 연도.

지난 10년간 가장 극적으로 감소한 가해유형은 집단따돌림으로 2013년에는 22,784명이었던 것이 2022년에는 2,519명으로 줄어들었다. 스토

킹, 금품 갈취, 강요도 2013년에 비해 2022년에 급격히 감소한 가해 유형들이다. 반면 신체폭력과 언어폭력은 다른 유형의 가해에 비해 그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지난 10년간 가해 유형별 응답 수를 총 가해학생 수로 나눈 가해 유형별 응답률을 분석한 결과, 초기에는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6년 이후 언어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집단따돌림은 감소하고 있다. 신체폭력은 코로나19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X-30). 한편, 일부 학교폭력 유형에서는 피해율과 가해율 변화추이에서 다른 양상이 확인되었다. 예컨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추이를 살펴보면 피해 유형 중 언어폭력 피해율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가해 유형에서는 증가 추세가 나타났다. 이처럼 피해율과 가해율 변화 추이 차이가 확인된 학교폭력 유형 및 해당 시기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X-30] 가해 유형별 응답률, 2013-2022



주: 1) 학교폭력 가해를 경험한 학생들만 응답함(복수응답 가능).
2) 가해 유형별 응답률(응답자 수 기준)=(가해 유형별 응답 수÷총 가해 학생 수)×10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각 연도.

맺음말

지난 10년간의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피해율과 가해율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8년부터 다시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완화된 이후에 학교폭력 피해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복귀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전면등교가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이 코로나19 시기에는 경험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어려움에 노출되고 있다. 학교폭력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을 위한 사회정서역량 강화, 피해 학생 보호조치 및 가해 학생 선도조치 강화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UNESCO. *Behind the numbers: Ending school violence and bullying.* 2019.